

마음그램을 기반으로한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 개발

안관수¹, 조상중^{2*}

¹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nhancement Program based on the Maumgram

Kwan-su An¹, Sang-joong Cho^{2*}

¹Professor, Dept. of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²Doctor Course, Dept. of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마음그램을 기반으로 한 중학생의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문헌을 수집 분석하여 이타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조사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 및 내용 분석에 필요한 요인 등에 관련된 것이다. 총 2회에 걸쳐 8명의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받았다. 프로그램 설계는 관찰, 전환, 관계지향 등의 3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로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요소를 선정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자기점검, 타인의 이해와 수용, 공감, 소통 등을 주된 내용으로 6회기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적용 효과를 검증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기심의 조절훈련을 통해 이타행동의 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중학생의 인성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이타행동 프로그램, 마음그램, 인성교육, 중학생, 이타주의, 이기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ltruistic behavior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Maumgram. To do this, we conducted basic research on the altruistic behavior program b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ed literature. The contents of the survey are related to the factors necessary for program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It has been validated twice in total by eight experts on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program. The program design consisted of three stages of observation, conversion,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and selected contents suitable for altruistic programs and conducted them once a week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lf-inspection, understanding, empathy and communication.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to verify the effect of applying the program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on the character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promoting the tendency of altruistic behavior through adjusting training of selfishness..

Key Words : Altruistic Behavior Program, Maumgram, Personality Education, Middle School Students, Altruism, Egoistic mind

1. 서론

인천에서 고등학교 자퇴 여학생이 공원에서 초등학생

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 청소년의 이기적인 모습과 도덕성 결여를 보여준 단적인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Kwan-Su An(ksan@wku.ar.kr)

Received August 20,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6,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사례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확립, 사회·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써 학생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성, 도덕성을 포함한 정서적 측면의 발달에 소홀히 하고 있다[1]. 청소년기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근본 원인은 타인을 돕고 배려해주는 이타주의적인 욕구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貪瞋癡)로 가득 찬 일상적인 마음을 조절하고 전환[2]하는 균형 잡힌 마음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이기적인 욕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타행동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 이타주의라 용어는 1851년 Comte가 ‘동정적 본능’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인간이 남을 돕는 행동 중에 자기 보존 동기가 내포한다고 보고 이를 자기이익, 자기만족 이기주의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타인을 위해 살려는’ 비이기적인 욕구가 남을 돕는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보았다[3]. 즉 이타행동은 어떤 형태의 보수를 받는다는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동을 말한다.

이타행동은 종종 친사회적행동(Prosocial behavior)과 도덕적 행동(Moral behavior)과 혼용되어 쓰고 있다[4]. 엄밀하게 말하면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이 타인의 이득을 위한 모든 도움행동으로 도와주기(helping), 협동(cooperation), 교환(exchange) 등의 광범위한 행동을 의미하며,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추론의 딜레마에서 법, 규칙, 권위 등의 금지지향적 요소가 판단을 지배하여 추론될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타행동은 도움행동 가운데 자신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제하고 순전히 타인만을 돕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5].

Kim과 Stevens(1987)은 부모와 교사는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고려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도록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행동이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행동의 발달은 사회적, 도덕적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에 본질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서로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행동으로써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과정이라 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6]. 이와 같이 이타행동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는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서적 요소인 공감기법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이타행동을 증진시키고자 한 프로그램[7], 경험중심적인 청소년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한 청소년을 위한 이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8],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강화와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등학생 대상의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9]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조망수용의 인지적 측면과 공감훈련을 통한 정서적 측면의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그 연구 대상도 주로 유아이다. 이타행동의 증진을 위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억제요인이나 동기와 같은 인지적·정서적 요소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기적 자아로 고착화된 마음을 이타적 행동의 자아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을 두루 갖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욕구는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고 충족이 되어야만 하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망이 극대화되고 충족되면 문제행동으로 발생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욕구가 발달되고 충족될 수 있는 자아 조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관수(2017)[10]가 개발한 마음그림의 네 가지 유형 중 ‘이기심형’의 조절을 위한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기심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관점이 치우친 상태로 대인 관계를 한다. 따라서 이기심으로 고착된 자신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자각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며, 나아가서 개인과 집단에 이로운 친사회적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기존중감이 배제된 이타행동은 위장된 이타행동의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만족이 결여된 채 순전히 타인을 돕는 이타행동의 증진은 지나친 자아 억제로 인해 건강한 사회적 유대 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이익이 곧 타인의 이익이 되는 공리적 이타행동 증진의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바람

직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타행동 관련 선행 연구고찰을 통해 이타행동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추출한다.

둘째 선정된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마음그림

본 연구는 연구자의 수년간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창안한 마음그림을 기반으로 한 확장연구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연구자가 정의한 마음그림의 개념 [10]을 수정보완하여 발표한 동일 년도의 마음그림의 개념 [19]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다.

마음은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습성과 자아의식에 의해 자신의 자아로 굳어진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 등이 고착화된 습성과 생각, 느낌, 정서 등과 같은 자아의식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주관적이고 유식적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어느 한 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수시로 변화한다.

서양에서 마음에 관해 심리학적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프로이트이다. 그의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적인 본능과 초자아의 욕구를 조절함으로써 현실 적응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사람은 같은 대상을 주관적 인식에 의해 다르게 알고 경험한다고 본다. 인간의 마음은 매 순간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습성과 자아의식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유식학에서 보면, 자아, 즉 마음이란 대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한 상호작용의 누적물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안관수(2017)[10]는 인간의 욕구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마음에서 비롯되며, 매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욕망의 상태로 변하면서 탐닉과 분노, 비교 경쟁 그리고 이기적인 유형의 사람이 되어 간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충족이 되고 잘 발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욕구(needs)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거나 충족하려는 욕망(desire)의 상태로 발달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발달해야 하지만 과도한 욕망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아로 고착화된 마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표출하고 해결하려는 인간의 마음, 즉 욕망이 될 때,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의 과정을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안관수(2017)[10]는 이러한 마음치유의 한 방편으로서 기존의 분석심리학 및 유식학을 기반으로 마음그림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음그림(Maumgram)’이란 오랜 기간 생겨난 습성과 자아의식에 의해 자아로 고착화된 마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마음자리(탐닉형, 분노형, 경쟁형, 이기심형)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마음치유교육의 단계적 구조를 용이하게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우선, ‘이기심형’은 심리학의 지(知)에 해당하는 마음 유형으로서 인간심리의 인지적 측면이 강한 마음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중심적인 이해나 관점에 치우쳐 대인관계를 하기 쉽다. 따라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마음을 이타행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노형’은 심리학의 정(情)에 해당하는 마음유형으로서 인간심리의 정서적 측면이 강한 마음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종종 욕구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 타인 또는 자신에게 해를 주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대자적-대타적 분노의 원인을 자각하고 평정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자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비교경쟁형’은 심리학의 의(意)에 해당하는 마음유형으로서 인간심리의 행동적 측면이 강한 마음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존중감이 결여되어 자기수용성이 결핍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이기려는 마음으로 자기위안을 찾는 유형이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자기구현을 실현하는 방향의 마음치유의 과정을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탐닉형’은 심리학의 의(意)에 해당하는 마음유형으로서 ‘비교경쟁형’과 마찬가지로 인간심리의 행동적 측면

이 강한 마음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종종 의지력이 결핍되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이 굳어져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따라서 개인의 습관과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의지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마음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음은 오랜 기간 인간의 습성과 자아의식에 의해 누적된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자아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그램에서 유형화된 네 가지 마음은 특정 순간에 우리의 욕구가 욕망으로 자각되는 자아상태의 유형화를 말한다. 건강하고 균형잡힌 마음을 유지하려면 네 가지 자아상태의 자각을 모두 필요로 하고 마음의 속성상 거의 동시에 그 자각의 과정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를 마음그램에서는 ‘발견’의 단계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탐닉적 마음유형자가 균형잡힌 마음을 유지하려면 의지력의 증진을 통해 욕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충족하려는 욕망의 마음을 자각하고, 이를 조절하려는 자아상태의 유지가 필요하다. 분노적 마음유형자의 경우는 평정심의 회복을 통해 욕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거나 충족하려는 욕망을 자각하고, 이를 조절하는 자아상태를 필요로 한다. 비교경쟁 유형의 마음은 자아수용성 향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기주의적 유형의 마음은 이타행동적 마음교육을 통해 욕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거나 충족하려는 욕망을 자각하고, 이를 조절하는 자아상태를 필요로 한다.

불교의 유식학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반응이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관념작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프로이트는 나이거나 나의 대변자인 자아는 인식 및 실천활동의 주체로 본다. 자아는 동기나 감정의 인식 및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기억과 경험에 의해 누적된 습성을 저장해두는 곳으로 건강한 자아가 균형 잡힌 현실생활의 주체가 된다.

불교의 유식학과 프로이트 심리학의 공통점은 마음의 치유를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찰 혹은 깨달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마음의 병은 습성과 자아의식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욕구가 욕망으로 자각되는 순간, 즉 발견의 순간을 통해 치유되고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연유로 마음그램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인식 및 실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 즉 자아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자아상태를 크게 4 가지로 유형화 한다.

마음그램에서는 인간 행동의 부정적인 욕구를 야기하는 습성과 자아의식이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다시 말

해서 개인의 자아로 고착된 자기 행위가 의식수준으로 떠오를 때, 그 원인의 자각과 그 자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마음의 조절교육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마음그램을 기반으로 한 마음유형별 프로그램의 설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을 통해 습성과 자아의식 형성의 원인을 지각하는 ‘발견’의 단계이며,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자아, 즉 욕망을 학습을 통해 조절하는 ‘전환’의 단계, 세 번째는 공동체적식의 함양을 목표로 소통능력을 키우는 타자와의 ‘관계 지향’의 단계이다 [10].

2.2 이타행동

2.2.1 이타행동 개념

타인(other)을 의미하는 ‘alter’의 어원을 가진 ‘이타주의(Altruism)’라는 용어를 ‘동정적 본능’의 의미로 근대 사회학의 Auguste Comte(1851)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인간이 타인을 돕는 행동 중에서 자기 보존 동기가 내포된다고 보고 이를 자기이익과 자기만족(Self-benefit and Self-gratification) 이기주의라고 명명하 바 있다. 동시에 ‘남을 위해 살려는(Live for others) 비이기적인 욕구가 남을 돕는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보았다[3]. 다시 말하면 이타행동은 어떤 보수를 받는다는 기대 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을 말한다.

이타행동(Altruistic behavior)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구별되어 사용되거나 혹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이타행동 내에서도 광의 또는 협의의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Zaguirre(1986)에 의하면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이며, 이타적인 행동은 도우려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9].

Blum(1980)은 이타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타행동이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관심에 따라 동기화된 행동이라고 한다. Berkowitz(1977)와 Macaulay(1972)는 보상을 원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이타행동이라 정의했다[11]. 이와 같이 선행연구자들이 밝힌 정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이타행동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타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며 남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행동이며 자신의 입장 보다는 타인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타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Bar-Tal(1976)[12]은 나눠주기, 도움주기, 협력하기 등과 같이 행동특성에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며, Eisenberg(1986)[5]은 도와주기, 협동하기 나눠 가지기, 위로하기 관용, 공감표현 등의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타행동은 관용(generosity), 배려(care), 자상함(nurturance), 동정심(compassion), 상냥함(niceness) 등의 의미가 있으며, 반대 개념은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였다[13].

이혜주(1996)[6]은 협력하기, 기부하기, 동정하기, 돕기, 공유하기, 편안하게 하기로, 신수정(2000)[8]은 협동하기 도움주기, 공유하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친절하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이타행동의 내용요소들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지만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요소들을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유사하다. 그러므로 수용, 공감, 조력, 증여(나눔), 관용(용서), 협력, 친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2.2 이타행동의 결정 요인

선행의 연구에서 이타행동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Cauley(1985)는 이타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 환경으로서 문화 실정, 성, 나이, 출생순위, 가족 수, 연령, 그리고 학년을 들었고, 성격특성 요인으로 변별성, 공감적 반응, 사회적 책임감, 자각된 능력, 자아 개념으로 보았다[4]. Lindzey와 Anonson 또한 이타행동이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비교적 영구적인 개인 특성과 상황적 특성사이의 상호작용, 가정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인지적, 정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다[7].

국내에서는, 이혜주(1996)[6]는 개인적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요인(친구, 학교, 교사), 인지적 요인(지능과 조망수용), 공감의 정서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채현탁(1998)[7]은 유전적 요인(사회생물학적 접근에 기초한 이타행동의 진화론적 가설), 개인적 요인, 규범요인(개인의 환경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요인), 상황요인(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인지·정서적 요인의 5가지로 보았고, 신수정(2000)[8]은 유전적 요인, 개인적 요인(성격, 성별, 연령 등) 및 상황적 요인(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 사회·문화적 요인(사회 규범 및 문화), 인지적 요인(조망 수용 능력), 정의적 요인(공감)으로 정리하고, 이지연(2003)[14]은 심리적 요인(이타적 성격과 자기도식, 공

감, 조망수용, 사회규범, 도덕적 추론), 사회적 요인(유사성, 정치적 유장), 이타주의의 지속/유지 요인, 인간관계 변인의 4가지를 이타행동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타행동의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유전적 요인, 개인 및 상황적 특성 요인, 인지적 요인(조망수용능력), 정서적 요인(공감), 행동적 요인(소통)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타주의적 행위에서는 지속적인 신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황과 욕구에 의해 종종 이타주의적 행위자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뢰성은 이타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이타주의적 마음을 형성하는 내재적인 핵심가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결정요인들을 토대로, 자기중심적 욕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이기적 자아를 이타적 자아로 전환하고 이타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2.3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이타행동 연구경향 국내·외 이타행동 연구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적 책임감 및 호혜성이 중심이 되었으나, 후반에는 사회학습이론의 영향으로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타행동 모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말 Kitty Genovese사건으로 인해 주변인의 무감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Latene와 Daley(1970)[15]의 연구가 계기가 되어 타인의 위기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1970년 중반에는 도움행동을 억제, 증진하는 연구가 관심을 모았고, 후반에는 도움행동의 발달연구와 도움이 일어나는 원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반에는 사회심리학의 영향으로 인간행동에 지각과 인지분야로 연구 경향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친사회적 행동 도움, 이타주의에 대한 연구가 다소 줄었지만, 오히려 사회심리학 분야의 교과서에는 친사회적 행동, 도움 이타주의 등의 연구 주제가 별도의 장으로 독립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주로 이타행동의 기제 및 동기에 대한 연구가, 그리고 1990년대는 이타행동 표출 및 동기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의 이타행동 관련 프로그램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작되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인성교

육이 강조되면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타행동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타행동 프로그램은 이타행동 요소 중 조망수용의 인지적 요소, 공감훈련의 정의적 요소의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대상도 주로 유아이다.

이혜주(1996)[6]는 5~8세를 대상으로 조망수용훈련을 활용하여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등장인물 중 역할을 배정 받아 역할놀이를 하는 역할수용조건과 역할을 해보도록 하는 역할 전환 조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채현탁(1998)[7]은 공감훈련기법을 통하여 정의적 요소를 강조한 중학생의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신수정(2000)[8]은 경험중심적인 청소년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행동적 요소를 강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억제요인이나 동기와 같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 선행연구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적 욕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이기적 자아를 이타적 자아로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3. 연구방법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활동으로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개발된 잘 구성된 활동이나 서비스를 말한다[16].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훈련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교수 체계 개발(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주요과정 즉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교수체계개발(ISD) 모형에서도 발견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17].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모형(2011)은 청소년 상담과 고려사항을 토대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계획-설계-실행-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개발 모형이다. 네 단계가 순환적인 환류의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모델로 공통분모로 전제하고 있다[18].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중학생 이타행동 프로그램의 개발은 목적과 방향에 따라 ADDIE 모형·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모형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기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단계로 조직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단계는 Table 1과 같다.

3.1 기획단계

기획단계는 개발한 프로그램의 의도 및 방향을 확립하는 단계로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과 내용, 기초조사 참여자 선정, 타당도 전문가 선정 등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개발 의도는 중학생의 이타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

Table 1. Program development process

Steps	Specific procedures	Contents
Planning	the establishment of purposes and direc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gram purposes and contents •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and experts for basic survey
Analysis	requirements analysis, preceding program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analyses of program goals and contents by basic survey and preceding program review
Design	the design of program structure and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elect of program contents' elements • the select of program goals • the select on how many steps for program goals and activity contents
Development	the detailed plot for program activities in s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aterial development for teaching-learning curriculum •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 for validation
Evaluation	the evaluation and revision of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evaluation and revision of program by primary expert • the evaluation and revision of program by secondary expert

교나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여 자신을 이해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 이해하고 수용하며, 공감을 표현하여 관계지향으로 나가 주변 친구나 타인들을 도와주며 소통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 하였다.

기초조사는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선택하였으며, 전문가 선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와 중학교 교사 등으로 잠재적으로 계획하였다.

3.2 분석단계

분석단계에서는 이타행동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개발 보급된 이타행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등학생 이타행동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학교에서 실행되는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의 선행연구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해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타행동에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고 국내외에서 개발된 이타행동에 대한 목표와 내용, 구성요소,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3.3 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는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요소와 영역을 정하고,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을 개발하여 상담심리 관련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문항을 정하였다.

3.3.1 프로그램 내용요소 선정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선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이타행동의 관련요소를 탐색하고, 최근 학교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의 분석을 통한 내용요소를 기반으로 수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내용요소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 되었고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각 요소를 포함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자기점검, 관점 수용이며, 정서적 요소는 공감적 관심, 공감적 표현이고, 행동적 요소는 영상 제작, 실천경험나누기, 소통 등이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타행동 향상을 위해 관련된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련 요소로는 자기점검,

수용, 공감 표현, 자기 강화, 소통을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맞게 회기별 내용요소로 선정하였다.

3.3.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욕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이기적 자아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자아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타인의 관점 수용과 공감 표현 그리고 소통능력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은 대부분 타인의 이해와 수용 및 공감에 관한 것들이다. 자신의 욕구를 상황적 요청에 부합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타행동 증진의 방법들은 연구자의 관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기심으로 집착된 자신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자각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기적 마음을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고, 나아가서 개인과 집단에 이로운 친사회적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첫째 이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타행동을 증진한다. 둘째 자기이해로 고착된 자기를 자각하고, 관점수용과 공감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해 나간다. 셋째, 개인을 돕는 이타행동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이타행동으로, 나아가서 지역공동체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3.3.3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목표 및 활동내용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관찰, 전환, 관계지향과 같은 3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타행동 향상을 위한 단계별로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내용요소별 학습목표와 활동내용을 선택하였다. 각 단계별로 선정한 학습목표와 내용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관찰단계에서는 자기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내용요소는 구성하였다. 주관적인 자신의 단·장점 점검, 친구의 표정 관찰하기를 통해 타인의 표정을 관찰을 통해 도움의 내용과 깊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타행동의 대상에게 관심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착된 모습을 재조명하고 자기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자각하여,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자각하여 이타행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Table 2. Program purposes and goals

Program purposes
Enhancing altruistic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altruistic behavior enhancement
↓
Program goal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urture altruistic behaviors through altruistic behavior enhancement. 2. Perceive self overwhelmed by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negative desire into altruistic desire by accepting perspectives and participating in empathy training. 3. Expand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altruistic behaviors that help individuals and prosocial altruistic behaviors.

전환단계는 타인의 관심과 공감을 통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이기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여 이타행동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타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인 타인의 관점 수용과 정서적 요소인 공감표현을 다룬다. 관점 수용은 사람마다 관점이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고,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고 공감훈련으로 Egan의 기본적 수준의 공감 형식을 활용하여 공감표현을 익힌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며, 같은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 수용과 공감을 익히는 과정이다.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공감에 반응하여 상황에 맞는 공감을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공감표현을 통해 개인의 공감능력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이타행동이 촉진된다.

관계지향의 단계에서는 자기강화와 소통에 관한 내용 요소로 구성하였다. 조별로 이타행동 영상을 제작하여 이타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이타행동 경험을 소개를 통하여 타인의 이타행동을 보고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이타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친구에게 이타행동에 대한 상장과 선물 수여로 지속적 실천을 위한 다짐하여 행동폭을 넓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3.3.4 프로그램 운영방법

프로그램 운영은 문헌분석과 관련 선행연구 자료 분석을 토대로 중학생의 집중시간과 학기 중에 실행할 수 있는 학교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안관수·황재연(2017)[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기 중 실시하므로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6회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 회기 45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에 1회기씩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회기별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활동내용 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Learning goals and contents in sessions

Session	Step	Study goal	Activities	Content factor	Area
1	Observation	Program introduction and self-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e mindgram and altruistic behaviors · Promise words · Introduce friends · Write preliminary questionnaires 	Self-understanding	Recognition
2		Explore self-image and pay attention to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 yourself · Observing friends' facial expressions 		
3	Conversion	Accept viewpoints of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e picture, different thoughts · Become more sincere friends 	Paying attention and accepting	Recognition / Emotion
4		Expressing empathy with minds and emotions of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athize with friends · Expressing empathy for growth 	Empathy and expression	
5	Relationship-oriented	Sharing altruistic behaviors exper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e video altruistic behaviors · Sharing individual altruistic behaviors experiences 	Communication	Behavior
6		Promise for practicing altruistic behavi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altruistic behaviors awards and confer them to recipients · Write reviews · Write post-questionnaires 		

3.4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과 활동계획안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할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교수학습 과정안과 활동계획안은 설계단계에서 선택된 내용요소, 학습목표, 활동내용, 회기 수 등을 기초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 안은 총 6회기로서 1회기의 시간은 45분으로 하였으며, 단계별로 관찰은 1~2회기, 전환은 3~4회기, 관계지향은 5~6회기로 하였다. 이타행동 유발할 수 있는 실천을 요소들 간의 관계 모형한다. 이타행동 발달 적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이타행동이 증진되어 올바른 인성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은 설문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평가항목은 전문가 8명에게 총 2차례에 걸쳐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목표의 적절성, 전체 내용구성, 학생수준의 적합성, 현장적용 가능성, 내용구성의 적합성과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타당도 설문지는 총 7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와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3.5 평가단계

평가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 분야 및 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앞서 개발한 프로그램 타당도 평가 설문지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안하였다.

개발단계에서 1~2차 평가를 모두 실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의 적절성, 전체 내용구성, 학생수준의 적합성, 현장적용 가능성, 내용의 구성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수정·보안 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 평가에 드러나 결과를 수정·보안하여, 2차 평가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학습과정안과 프로그램 내용을 최종 개발하였다.

4. 연구결과

4.1 개발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기점검, 수용, 공감, 실천 등의 이타행동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집단에 이로운 친사회적 이타행동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6회기 동안 자기 점검 과정에서 자신의 집착된 모습을 자각하며, 타인의 수용과 공감표현 훈련을 통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며 수용을 통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고, 자발적인 이타심을 통해 조력, 증여, 협력, 친절, 관용 등의 행동폭을 넓혀 개인과 집단에 이로운 친사회적 이타행동방식으로 소통하여 행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과 기초조사를 통해 결정된 내용 요소에 따라 관찰, 전환, 관계지향 등의 3단계로 정리하였다. 관찰단계는 관찰을 통해 자기점검을 통한 자신의 자아를 자각하고, 전환단계는 타인의 관점 수용과 공감을 통해 이기적 욕구를 전환시키고, 마지막 단계는 관계지향의 단계로 이타행동의 범주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역공동체로 확산하는 소통의 과정이다. 3단계에 포함된 내용요소는 자기점검, 타인의 수용, 타인 공감, 자기강화, 소통 등으로 하였다. 총 6회기로 조직된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 진행 방식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Unfolding strategies in sessions

Process	Contents	Time
Inp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explanation of last period topic explanation a session task checking 	10 min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ividual activity group activity practice 	20 min
Outp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ummarizing of activities' contents giving opinions giving task 	10 min

이타행동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목표와 활동내용을 재구성하였다. 1~2회기는 인지영역으로 내용요소는 자기이해로 구성하였다.

1회기 학습목표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이타행동에 대한 개념과악과 이타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진행방법은 도입단계에서는 간단한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프로그램의 소개와 게임을 통한 내포형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단계에서 마음그림과 이타행동 개념의 이해를 위한 설명과 동영상 시청, 친구소개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구 이야기를 경청한다. 정리단계는 활동내용의 정리, 참여자의 소감 발표, 다음 회기의 내용 안내, 이타행동 사례 찾아오기 과제 제출 등으로 수업을 마무리 한다.

2회기 학습목표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장·단점을 통해 이기적인 자기 행위의 근원을 이해하고 자각한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이와 같은 각자의 입장이 다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초훈련을 한다. 진행 방법은 1회기와 같이 도입, 전개, 정리단계로 구성한다.

1~2회기의 핵심 내용요소는 자기점검이다. 자신의 행위와 마음 점검을 통한 주의집중으로 자신과 타인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서 자아 중심성의 극복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표정을 관찰하여 감정을 이해하여 이타행동을 이끌어 내는 기초훈련을 한다.

3~4회기는 주로 인지·정서영역에 관한 것으로, 이는 타인의 관점 수용과 공감 같은 내용요소를 위주로 이기적인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의 이타행동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조망수용과 공감의 인지·정서적 요소를 다룬다. 수용은 타인의 심리적인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해 타인을 보다 깊이 탐색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정서와 같은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감 반응을 훈련을 통해서 타인의 성장 동기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타행동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공감표현 훈련을 함께 수행한다.

3회기의 학습목표는 궁극적으로 관점 수용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수용을 통해 보다 깊은 수용과 공감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환하는 데에 있다.

4회기의 학습목표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감 표현의 훈련을 통해 자기중심적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참고로, 4회기의 프로그램 활동계획안을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5회기의 학습목표는 이타행동 경험 나누기를 통해 협동을 통한 이타행동 실천이다. 이타행동의 경험 나누기를 통하여 이타행동의 학습내용을 살피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이타행동 영상을 제작하여 이타행동에 대해 학습하는 응용훈련에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타행동 경험을 소개를 하므로 타인의 이타행동을 보고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이타행동에 대한 행동반경을 넓힌다.

6회기의 주된 내용요소는 지역 공동체로의 소통과 확산이다. 자신과 친구에게 이타행동 상을 제작하여 선물과 함께 수여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이타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지역사회, 나아가서 세상과 소통하는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Table 5. Program Schedule

· Four sessions			
Objective	· Show empathy with minds and emotions of friends and improve altruistic behaviors through empathy and expression trainings.		
Material	Activity paper 4-1, 4-2, pencils		
Content factor	Empathy and expressing empathy	Time	45
Step	Content		Method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d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t on chairs, breathe, and search for minds. • Check assig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ctice altruistic behaviors and give presentations • Introduction on today's t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n you deeply understand others and empathize with them, altruistic behaviors increase. 		Lectur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athize with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roles in 'Moon and Princess' fairytale and read it. - How does the princess in this story feel and what does she anticipate? - How do parents, scholar, and doctor empathize? - What is a way for empathy of clown? - What is my way for empathy? • Expressing empathy for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ain empathy expression for growth. - Find a growth motive when you practice altruistic behaviors. If you know and practice it, altruistic behaviors make you satisfied and mature. - Gread a sample passage with a group with two people and find out empathy expression and altruistic behaviors for mutual growth. - Give presentations on feelings on empathy expression for growth. 		Writing/ Presentation
Sum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marize activities done in this session and explain. • Share briefly what you learned and feeling in this session. • Do an assignment for the next session - Practice altruistic behaviors and film 		Writing/ Presentation

4.2 프로그램 타당도 평가

4.2.1 1차 전문가 타당도 평가

이타행동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는 중등학교 상담교사 1인, 교육학 박사 1인, 전문상담사 3인이다.

이메일 및 면접방식을 통해 이타행동 프로그램의 6회기 활동계획안과 내용타당도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타행동 프로그램 1차 타당도 검증4.3프로그램의 목표의 적합성, 내용구성의 논리성, 학생수준의 적합성, 현장 적용 가능성, 내용 구성의 적합성을 각 문항별로 반영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가 되었으며, 항목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사항에 대한 제언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 1차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Program contents validation outcomes

Numbers	Items	Averages
1	logic connectivity for whole contents configuration	4.4
2	availability of contents configuration and fied application	4.4
3	suitability for students' level	4.2
4	suitability for contents elements a session	3.8
5	suitability for learning goals a session	4.6
6	relevance of activities's contents	4.6

프로그램 6회기 타당도 평가 결과는 3.8점에서 4.6점이고 전체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평가 결과 나타난 개선사항으로는 2회기에서 ‘습관적인 언어태도 유형과정은 중학생에게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음’, ‘프로그램 중 PPT 자료 외에 동영상 자료 활용 필요’, ‘조별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으로 만들기 활동을 하는 회기가 없음’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관련된 변인의 투입 순서와 프로그램 도입, 전개, 마무리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중학교 수업을 고려한 시간 배분과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사례 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일부의 발문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습관적인 언어태도 유형과정은 중학생에게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주관적 자기 마음 점검하기’로 수정하였다. 둘째, 영상 자료는 회기별로 필요한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셋째, 조별 협력과 공동으로 만들기 활동 결핍의 문제는 회기별로 조별 활동의 강화,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조별 영상제작활동을 통해 해결하였다.

4.2.2 2차 전문가 타당도 평가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1차 타당도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프로그램 계획안에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 평가는 중등학교 교사 1인,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 경력이 있는 전문가 1인,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차 평가의 결과는 Table 7 같다. 내용구성의 논리적 연결성은 4.3점, 실제 활용가능성을 묻는 현장 적용 가능성은 4.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수준의 적합성은 4.3점, 각 회기별 내용의 적정성은 4.3점, 각 회기별 학습 목표의 적절성은 4.3점 각 회기별 활동내용과 이타행동과의 관련성은 4.3점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평균은 4.4점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Table 7. Program contents validation outcomes

Numbers	Items	Averages
1	logic connectivity for whole contents configuration	4.3
2	availability of contents configuration and fied application	4.7
3	suitability for students' level	4.3
4	suitability for contents elements a session	4.3
5	suitability for learning goals a session	4.6
6	relevance of activities's contents	4.3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는 ‘공감표현과 이타행동 연결이 느슨해 보임.’, ‘중학생 수준에 적합하나 학생들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의 차이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매 회기 별 도입 부분에서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의 필요성’ 등의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피드백으로 반영하여 첫째, 공감표현과 이타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중학생 수준을 고려한 언어 선택과 언어 능력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 회기 도입 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2회에 진행된 전문가 타당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고 충족이 되어야만 한다. 충족이 되지 못할 경우 욕망은 극대화되고 충족을 위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가 표출되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조망수용의 인지적 측면과 공감훈련의 정의적 측면의 프로그램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안관수(2017)[10]가 개발한 마음그램의 네 가지 유형 중 ‘이기심형’의 조절을 위해 인지·정서적 요인 외에 행동적 요인도 두루 포괄하는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관찰, 전환, 관계지향의 3단계의 프로그램 설계로, 이기심으로 고착된 자신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자각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이타적인 욕구로 전환하며, 지역공동체에 이로운 친사회적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자기이해, 타인의 이해와 수용, 공감 및 공감표현, 실천, 소통 등을 핵심 내용요소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중학생의 이타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토대로 행동적 요소 측면을 강화하여 종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1·2차 전문가 타당도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한 본 프로그램은 논리적 연관성, 현장적용 가능성, 학습자 수준의 적합성, 회기별 내용요소, 학습목표 적합성, 활동내용의 관련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 평균 4.2점으로 비교적 높은 타당도 평가를 나타냈다.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이타행동 증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성 내용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비교 검증을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타행동에서 영향을 주는 소통과 나눔의 행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행동적 측면에 비해 인지적·정서적 측면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의 종료 후 중등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사고 및 관점의 전환이 향후 행동적 측면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후속연구를 통해 그 연관성 및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중등학생과 학교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시간을 45분씩 총 6회기로 진행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참여정도 및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이타행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과 회기 수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H. J. Lee. (1997). The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 Training on Prosocial Moral Reason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with Reference to Children's Age and Gender.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11(2), 189-221.
- [2] S. M. Lew. (2012) Deepening pain in our heart, shallowed maumgongbu. *Maumgongbu and mindhealing. 10th Conference for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1-15.
- [3] S. H. Park. (1993). *An experimental study on empathy in relation to the altruistic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4] D. Bar-Tal. A. Raviv & T. C. Leiser. (1980).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mpirical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16-524.
- [5] N. Eisenberg.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6] H. J. Lee. (1996).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 Training on Prosocial Moral Reason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with Reference to Children's Age and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7] H. T. Chae. (1998).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nhancemen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eimyng University, Daegu.
- [8] S. J. Shin. (2000).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 for Altruistic Behavior in Youth* Master's dissertation. Keimyng University, Daegu.

- [9] S. H. Heo. (2002). *Effect of Altruistic Behavior Promotion Programs on the Motives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10] K. S. An. (2017). An Exploratory Study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using Maumgra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1)*, 393-401.
- [11] T. W. Kim. (2000). *A study on self-esteem, problem behavior, and altruistic behavior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2] D. Bar-Tal. (1976). *Persocial behavior : Theory and research*. N.Y : John Wiley & Sons.
- [13] C. Peterson. W. Ruch. U. Beermann. N. Park & M. E. Seligman. (2007).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49-156.
- [14] J. Y. Lee. (2002). *The characteristics of exemplary egalitarian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15] J. M. Darley & B. Latane'. (1968). Bystander-intervention in emergencies :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202-214.
- [16] D. Royes. B. A. Thyer. D. K. Padgett & T. KLogan. (2001). *Program evaluation: An introduction*. Belmont, CA : Wadsworth.
- [17] J. S. Han. N. J. Ju. M. H. Kang. J. S. Jeong & S. H. Pak. (2008). *Instruc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Paju : Kyoyookbook.
- [18] C. H. Lee. H. N. Kang & H. S. Yu. (2011). *Development of youth counseling program*, Busan : Korea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 [19] K. S. An & J. Y. Hwang. (2017).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rogra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Improve Willpow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1)*, 413-425.

안 관 수(An, Kwan Su)

[중신회원]



- 1986년 8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학사)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3년 5월 ~ 현재 : 인문사회융합콘텐츠센터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디지털인문융합연구
- E-Mail : ksan@wonkwang.ac.kr

조 상 중(Sang-Joong Cho)

[정회원]



- 2016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E-Mail : wonhyun2000@daum.net